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과 장 사무관	김일규 문은정	042-481-5258 042-481-5807
 2020년 1월 16일(목)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1조원 시대 개막

- 2019년 지재권 보증·대출·투자 규모 1조 3,504억원 달성 -

□ 지난 해(2019년) 우리나라 지식재산(IP) 금융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IP 금융이란 기업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아니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스템을 말함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2019년 신규공급 기준으로 지재권을 담보로 하여 실행하는 IP담보대출액 4,331억원, 지재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IP보증액 7,240억원, 우수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재권에 직접 투자하는 IP투자액이 1,933억원에 달하여, 총 IP 금융시장 규모가 1조 3,5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IP 금융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 7,632억원에 이어 2019년에는 전년대비 5,872억원(77%)이 증가하는 큰 성장세를 보였다.

* IP 금융 규모 추이(억원) : ('15) 4,115 → ('16) 5,774 → ('17) 6,871 → ('18) 7,632 → ('19) 13,504 (전년대비 77% 증가)

○ 이는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와 기업 경영에 있어 지식재산에 대한 기업 및 금융권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 특히, IP담보대출의 경우, 전년대비 4.9배 증가하여 총 4,331억원 (2018년 884억원)에 달하였고,
 -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1,230억원, 신한은행이 880억원, 국민은행이 692억원 순으로 대출했고, IP투자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이 동영상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113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IP 금융의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우수 투자사례도 다수 도출되는 등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이디벤처스(IDV) 등은 A기관이 보유한 통신표준특허(LTE, 3G)에 '17년말 투자했고, 소송 및 라이선스 협상으로 1년 8개월만에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금의 3배를 회수한 바 있고,
 - 벤처기업인 “셀파스페이스”는 식물용 맞춤형 광원기술에 대한 특허로 투자를 유치하고 제품* 개발에 매진한 결과,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미국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 식물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빛을 최적의 파장과 세기로 제공하는 장치

- 특허청은 16일(목)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19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IP 금융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IP 금융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2020년은 본격적인 지식재산 금융시장 형성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이 금융의 도움을 받아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연도별 IP 금융 규모

□ 연도별 IP 금융 규모 현황(신규공급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IP담보	841	202	866	884	4,331	7,124
IP보증	2,826	4,934	4,930	4,872	7,240	24,802
IP투자	448	638	1,075	1,876	1,933	5,970
합계	4,115	5,774	6,871	7,632	13,504	37,896

* 보증기관(신보·기보), 국책·시중은행(7개), 투자기관 대상 집계('20.1월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규모 추이

